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5.8.29.(금)	보 도 자 료 담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02)6788-2606
--	---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평가 -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이자 국민을 위한 예산안 -

-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해서 적극적 재정기조로 편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안입니다.
-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으로 평가합니다.
 - 정부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며,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도 우려됩니다.
 -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함께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재정기조로 편성한 의미라고 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D 예산이 편성되었고, AI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되었습니다.
-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 평가합니다.
 -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

안은 재정의 선순환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라 봅니다.

- 또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술선수범하여 역대 최고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예산안입니다.

- 역대 정부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설명하는 일부 항목들에 한해 알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출구조 조정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재정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 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 8. 29.

더불어
민주당

한성애 정책위원회 의장,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